30대가 바라본 2000년대 교회상과 교회현장

김 진 경
(34세, 광고업 종사)

가슴 벅차지만은 않은 2천년이 이제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씨로 세워진 뒤 어느듯 2세기를 달려가고 있다. 현금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러가지 비판과 충고를 가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논의와 한국정치판같은 지리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기본 명제에 대한 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모 교수가 늘 하는 것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대안없는 교회비판과 목회자 비판은 이제 정리해야 할 단계이다. 구시대에서나 통하던 독설과 냉기어린 냉소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또 변신하여 시민운동이니 윤리운동이니 하면서 교수로서의 연구하는 자세와 창조와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논리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보신적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교회 안의 힘있는 그룹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룹이 현재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대는 30대와 40대 초반이라고 생각된다. 30대 전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한 것이다. 대체의 상층부분을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에 종사하거나 기업의 생산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중간부분은 30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리, 과장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룹이 바로 30대들인 것이다. 왕성한 생산력과 힘, 그리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군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오늘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산업사회를 실제적으로 지탱해 나가는 세대는 바로 30대들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사중 약 70%가 30대들이고 이벤트기획자, 광고업, 유통업, 서비스업, 컴퓨터서쳐, 컴퓨터애디터, 인공지능전문가, 항공엔지니어, 광(光)산업, 환경오염측정기사 등 환경전문가, 식품관련전문가, 이미지 컨설턴트, 노인문제연구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분야에 걸쳐 30대들이 실제 경영주이자 소유주로 자리잡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30대들의 교회생활은 어떠한가? 약 80%에 달하는 상당수의 우리 30대들은 꼬박꼬박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생활, 예배출석으로 대변되는 교회생활에 자괴감을 갖는 있는 것 같다. 그저 예배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와서는 T·V나 비디오 등으로 아니면 모자란 잠을 채우는 것으로… 뭐 이런 정도이다.

30대는 20대와는 달리, 이미 대학 졸업자같은 경우에는 약 5~15년간에 걸친 산업사회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막연한 이상적, 환상적 생활을 꿈꾸지 않는 세대들이다. 대신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오히려 늘 30대들에게 침묵과 무관심 아니면 과다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대는 변혁의 시대를 살아왔다. 6·25 이후의 빈핍한 경제구조 속에서 4·19, 5·16과 같은 정치변혁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이다.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늘 변화에 익숙해져 있고 미진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율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세대들이다. 그런데 이런 세대들에게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그리고 수구적, 보수적 경향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막 자기집을 마련하고 자기 차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다. 이런 잠재력을 가진 세대들이 고작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30대들이 가진 지식과 힘 그리고 재력을 효과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선교적 사업을 위해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신학교 및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 대단히 심각한 것이 "도덕성 결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꾸 글로 쓰고 폭로적, 선정적으로 노출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교회가 건전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전도를 위한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기독교운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움직임에 주역이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단순히 정적인 구호나 폭로성, 인기성 발언을 통해 젊은이들을 무모한 자극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무엇보다 "상식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남을 돕고 살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와 같은 것이다.

노인을 위한 건강 강좌와 실버산업이 새로운 산업형태를 띠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30대의 힘과 관심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한다. 성경공부, 전도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교회의 인쇄문화나 전산화 문제들에도 얼마든지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때 머리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다.

30대는 교회가 "상식적인 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가져야 할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지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서없이 여러 말을 많이 썼지만 필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그리고 철저한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 30대 젊음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